라마단 기도 인파 이슬람 신도들이 라마단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바 사원을 찾아 기도하고 있다. 라마단 기간(9월 1일~30일)에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음식 섭취와 성생활 등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금융위기 유럽 확산 조짐

금융그룹 포르티스 은행부문 매각 논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합작 금융그룹인 포르티스가 회사 전체 또는 지난해 취득한 ABN암로 네덜란드 은행사업 부문을 매각할지 모른다고 미 CNBC방송이 현지언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ABN암로의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BNP파리바는 포르티스 전체 또는 ABN암로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ING나 라보방크도 포르티스의 프라이빗뱅킹 사업부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의 누트 웰링크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등은 브뤼셀에서 벨기에 정부 관리들과 긴급 회동, 포르티스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날 벨기에 총리, 재무장관 등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6일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위기설이 돌면서 주가가 20%나 폭락하자 사실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주가 관리의 책임을 물어 최고 경영자를 전격 교체하는 등 유럽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업체는 1990년 네덜란드의 AMEV VSB와 벨기에 AG그룹간 합병으로 탄생했고 은행,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며 2006년 기준 관리자산이 4천220만 유로다. /연합뉴스

中 '멜라민 파동' 진화로 선회

전세계 피해 확산 불구 "환자 급격 감소" 발표

허베이성 신장 결석 어린이 1만 5천명 육박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은 파동을 진화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유제품의 조사 결과, 더 이상 멜라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멜라민 분유로 인한 새로운 환자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파동의 진원지인 허베이성에서 신장결석에 걸린 어린이가 1만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허베이일보는 허베이성 전체의 병·의원에서 검사한 어린이 130여만명 가운데 1만4천516명이 신장결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받은 어린이는 1천675명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24일 이래 전국에서 유통되는 763개의 유제품을 샘플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멜라민 성분 검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앞서 질검총국은 27일에도 액체 상태의 우유와 요구르트 등 47개 브랜드의 269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위생당국도 멜라민으로 인한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멜라민 파동을 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나섰다.

이번 파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던 중국 언론들의 관심도 25일 선저우 7호 발사를 계기로 줄어들었다.

금융당국도 파산 위기에까지 처한 유제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라고 상업은행들에 지시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과 식품 안전에 관한 대화채널과 상호통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의 주도로 양안(兩岸)의 식품위생 검역 전문가들은 28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北 검증계획 中에 제출 美 핵해결 절충안 검토"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검증체계 구축방안과 관련, 북한이 중국에 검증계획을 제출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시료채취, 주요 핵시설에 대한 방문 및 미국이 원하고 있는 다른 요구사항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8월 핵신고서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형식이다.

북한이 핵검증 계획을 중국에 제출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잠정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중국은 북한이 핵검증 계획을 수용했다고 발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그의 측근들이 검토중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주요 (국무부) 관리들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힐 차관보는 이번주 방북,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문제와 핵 검증체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 대해 북한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소 日총리 정치자금 논란

수뢰 의혹 수사 기업서 400만엔 받아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지부장으로 있는 자민당 후쿠오카 제8선거구 지부가 수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측으로부터 2007년에도 30만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이날 후쿠오카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문제의 기업은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야마토수지광학'이다. 이 회사는 2006년까지 12년간 자민당 후쿠오카 제8선거구 지부 및 아소 총리의 자금관리 단체인 '소와이회'에 총 370만엔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사가 2007년까지 아소 총리측에 제공한 총액은 400만엔이 된다.

자민당 후쿠오카 제8선거구 지부측은 "법률에 근거해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반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에 의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남북 군사실무회담 내달 초 개최하자" 정부, 北에 역제안

정부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10월 초에 개최하자고 북측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남북 군사채널을 통해 군사실무회담을 이달 30일께 판문점에서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우리 측은 전날 오후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10월 초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수정 제의했다"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날짜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정 제의한 회담 날짜는 10월 2~3일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군사당국간 회담으로 기록된다. /연합뉴스

미대선 D-30 판세와 전망

미국 공화당 존 매케인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대권쟁취를 위한 막바지 30일간의 대결전에 들어간다.

대선(11월4일)을 4주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는 승기 굳히기, 매케인은 대역전 발판 마련에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열흘 못버틴 매케인 기세 오바마에 3~6%P 뒤져

지난 26일 제1차 대선후보 토론회를 마친 후 판세는 오바마가 대체로 매케인을 3~6%포인트의 격차를 두고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이 25일~27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바마가 50%의 지지율을 얻어 44%에 그친 매케인을 6%포인트 앞섰다. 인터넷 정치전문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을 47.6% 대 43.6%로 4%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오바마는 여세를 몰아 1차 TV토론에서도 판정승에 가까운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1%는 오바마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매케인을 첫 토론회의 승자로 꼽은 유권자는 38%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직 잠복변수가 있는 만큼 대선의 최종승자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대규모 구제금융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바마의 경제 비교우위가 희석되면서 막판 판세는 다시 혼전 양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오바마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이어갈 경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인 유권자 및 일부 부동층 사이에서 매케인에 대한 표결집 현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대선 전문가들은 매케인이 외교·안보분야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초선 상원의원 출신인 오바마를 '준비되지 않은 군통수권자'로 몰아세울 수만 있다면 상당부분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매케인은 회심의 카드로 내건 새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가 10월 2일 민주당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최소한의 무승부도 기록하지 못할 경우, 반전의 기회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닝메이트 지명 이후 단 3차례의 TV인터뷰에 응했던 페일린이 부통령 후보에 걸맞은 외교적 식견과 정치 철학 등 기본기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부통령 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